2016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개최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기덕)는 10월 14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사묘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2016년도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계동 파종회장협의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오극 태사묘관리위원장, 안동권씨 15개 파(派) 회장 및 부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총회에 앞서 권기덕 회장은 관복(冠服)으로 갈아입고 다른 파종회장들은 평복(平服)을 입은채 김정동 태사묘 사무국장의 집례(執禮)에 따라 태사묘에서 알묘(謁廟)를 하였다. 알묘가 끝나자 태사묘 배대홍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안동태사묘에 관한 설명을 듣고 태사묘 옆 보물각(寶物閣)으로 이동하여 삼태사(三太師) 유물(遺物)과 고려 공민왕의 하사품 등 귀중한 각종 문화재를 둘러보았다.

태사묘 숭보당(崇報堂)에서 가진 총회는 시중공파종회장인 권중덕 사무국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望拜), 상읍례(相揖禮)를 하고 신입회원 권병선(추밀공파). 권영동(동정공파) 두 부회장이 가입에 따른 인사말을 했다.

이어 권기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제9차 임시총회때 밀양 완재정을 방문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최근 하늘에는 북한 김정은이가,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 시끄럽지만 오늘은 각 파 회장과 부회장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계동 파종회장협의회 고문은 축사에서 "5년 전 2011년 8월 안동장자방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지금까지 안동일원정, 영덕 종친회관 및 괴시마을, 경남 산청 경강정자, 봉화 닭실 추원재, 밀양 완재정을 방문하면서 총회를 가졌다"고 회고하고 "오늘은 안동 태사묘 숭보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게되어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여 문중(門中)의 단합된 힘을 과시, 어깨를 펴고 다녀야 하고 자부심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곧 이어서 권중덕 사무국장은 지난 5월 임시총회 개최 등 9가지의 경과보고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결산보고를 했으며 권오수 감사는 입출금이 정확하다는 감사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권계동 고문은 대종원 권혁승 수석 부총재가 최근 사임함에 따라 자신이 수석 부총재가 되었다고 밝히자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로 환영했다.

기타 토의에서 권경석 추밀공파종회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대전시립박물관에서 2015년 '광산김씨'에 이어 '한국의 명가' 두 번째 특별전 "사시지문(四始之門), 안동권씨와 양반의 역사"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태사묘주변의 주차시설 확충, 대종원을 대종회로 명칭변경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의했다.

이날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300g짜리 멸치 1통씩을 선물로 전달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태사묘 부근에 있는 <밀래 한정식>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한편 내년 5월에는 별장공파종회(회장. 권순협)가 안동시 서후면 안동권씨능동재사(陵洞齋舍) 추원루(追遠樓)에서 파종회장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영양 남경대 문화재로 지정, 고유제 지내

부정공파(副正公派) 산택재(山澤齋) 문중(門中)은 10월 15일 오전 11시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에서 남경대(攬景臺)가 경북도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영구 보존을 위해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이날 산택재 문중대표 권영희. 권세회를 비롯하여 권영택 영양군수, 영양. 안동. 청송 등 3개 지역 유림(儒林),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회자는 식순에 따라 권영택 영양군수의 인사말이 끝난 후 남경대에 관한 경과보고를 하였다. 곧 이어 남경대에서 고유제를 지내기 위해 분정(分定)을 했는데 상례(相禮) 유건기(柳建基), 초헌관(初獻官) 권영택(權英澤), 아헌관(亞獻官) 장성진(張晟鎭), 종헌관(終獻官) 이돈(李燉), 축(祝) 정휘서(鄭輝書), 찬자(讚者) 박동균(朴東均)이 각각 담당하였다. 이날 박동균 집례(執禮)에 따라 헌관(獻官)들은 남경대에서, 도포(道袍)를 입은 유림들은 장소가 좁아서 남경대 맞은편 넓은 빈터에서 1시간 가량 엄숙하게 고유제를 지냈다.

고유제가 끝나자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남경대 책자 1권, 메모 필기도구함, 교통비 2만원, 안동간고등어 1통씩을 선물로 전달하고 마을회관 앞에서 국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해산하였다.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산 29-1에 위치한 남경대는 조선시대 지은 목조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평 29.75㎡ 목재 한옥기와 정자인데 지난 9월 12일 경북도로부터 문화재자료 제 645호로 지정받았다.

남경대는 1615년(광해군 7) 용담(龍潭) 권지(權誌) 선생이 처음 건립한 정자로 그의 아들 번곡(樊谷) 권창업(權昌業)이 물려받아 별서로 삼았고 이후 손자 산택재(山澤齋) 권태시(權泰時)가 중건하는 등 연 3대에 걸쳐서 학문연구와 후학을 양성하는 강학처로 삼았다. 남경대는 반변천과 동산천이 합수하는 지점의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풍광이 매우 수려해서 경향(京鄕)의 명승지로 유명한 곳이다. 1916년 중건 한 남경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훼손된 것을 1993년 다시 중건하여 오늘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검교공파종회 파조 추향제 봉행 및 정기총회개최

검교공파파종회(회장 권태강)는 지난 10월 12일 오전 10시 경북상주시공검면율곡리소재 숭덕산 파조(諱 척 倜)의 단소에서 전국 각지에서 60명인의 후손이 참재하여 경건하게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이어 음복례를 마치고 권영호 총무부장의 사회로 병신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의례를 마친후 권태강회장은 인사말에서 처음 취임시 파종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어떻게 평가될지, 벌써 3년이 흘러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하고, 새 회장이 선출되면 서로 협력하여 파종회를 잘 발전시켜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이어 권무탁 수석부회장의 격려사와 교통사고로 장기간 투병후 완쾌한 권태욱 고문은 격려사에서 오랜만에 참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숭조하는 마음이 한결같아 고맙다는 격려사를 하였다. 운영보고와 권태정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을 하게 되었다. 관례에 따라 권춘식고문이 임시의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였다.

전형위원5인을 선정하여 현 권태강회장의 직책수행을 높이 평가하여 만장일치로 연임토록 하였다. 태강회장은 임원 모두를 유임하여 분열없는 단합된 파종회를 만들자고 제청하였다. 또한 전날저녁 계좌석상에서 금년 종묘제례에 헌관으로 추천받아서 집사한사람을 대동해야 한다며 권오철고문을 지명하고 검교공파에서 2명이 종묘제례에 참여하는 것은 파종회와 안동권문의 영광이라 하였다. 끝으로 재실관리현황을 보고후 오찬 뒤에 산회하였다.

집사분정 초헌관: 권오학(파종손) 아헌관:권무탁 종헌관:권태정 대축:권춘탁 집례:권영욱 (총무부장 권영호)

부호장공파종회 파조 추향제 봉행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오정)는 파조(派祖)의 세 번째 추향제(秋享祭)가 10월 8일 오전 10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참제원(參祭員)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분정례(分定禮) 글은 권기영씨가 썼는데 초헌관(初獻官) 권오진(權五璡), 아헌관(亞獻官) 권병균(權丙均), 종헌관(終獻官) 권오정(權五貞), 축(祝) 권영상(權寧相), 집례(執禮) 권중대(權重大)가 각각 담당하였다. 전날 오전부터 추향제를 봉행하는 이날 오전까지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먼 거리에 있는 참제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700여 년 만에 파조 고유제를 봉행한 이후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추향제에는 헌관(獻官)들이 검정색 관복(冠服)으로 갈아입고 일원정 마루에서 참제원과 함께 1시간 이상 추향제를 봉행하는데 흐트러짐 없이 파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다하였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오진 도유사(都有司)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파조 추향제때 참제원 여러분들이 엄숙하게 봉행한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저가 수임(首任)을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겸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원정 건물 양쪽에 날아가는 형상의 새가 두 마리 있는데 기록에는 봉황이라고 쓰여있으나 나의 생각은 봉황이 아니라 학이라고 생각된다"며 "학은 1천년을 사는 새로서 안동권씨 가운데 유일한 정자인 일원정에 학이 두 마리 있는 것은 조상을 추모하고 종원(宗員)끼리 화목하게 해 달라는 의미로서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현 새대에서 모든 것을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정 파종회장은 "비가 오는 관계로 참제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늘 추향제에 수고한 부녀회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천총친회 태사묘참배

서울시금천구 종친회는 운영위원회의 129회를 맞이하여 권태복회장외 15명의 종원은 서울에서 오전7시에 출발, 안동시 조묘소에 11시경 도착하여 미리 마련해 간 제수음식을 진설한뒤 시조님께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한뒤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귀경길에 올랐다.

(금천구 종친회 총무 권이호)

정조공파대구파친회 보학강좌

정조공파대구파친회(會長權寧日)는 지난 9월24일 오후6시30분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보학강좌를 개최하였다.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에대한망배, 상읍례에 이어 영일(寧日)회장의 보학의 필요성과 고려검교태자소첨사 권정평 묘지명의 출현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인사말에 대신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權五德(前會長)강사의 소첨사공 권정평 묘지명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공의 생몰년월 공의 일대기 및 가족사항까지 상세한 설명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또한 권정평 묘지명 원문과 해설을 교재로 만들어 모든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진지한 강의가 끝나고 열심히 경청하던 참석자들은 권오덕 강사의 선창으로 건강을 위하여 다함께 건배를 하고 정식과 해물 찜으로 식사를 하며 정담들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總務 赫相)